



닭고비 소비의 활로는?

“수입 쇠고기 대신 닭고기를” 이 말은 79년 본회에서 닭고기 소비 확대를 위해 사용한 표어였다.

닭고기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더 많이 소비시킬 수 있을까?

이는 우리 양계인의 염원이며 이 벽을 깨지 않고는 더 이상 양계산업이 발전할 수 없음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닭고기나 계란이 과잉생산 되어 불황이 올 때마다 하기 좋은 말로 혼히들 생산조절 수매 비축 가공식품으로 공급을 목이 아프게 외친다.

누가 들어주기를 바라서 하는 말이 아니고 그저 허공에 외쳐 봄으로써 답답한 심정을 풀어보려는 목적이 더 큰 것 같다.

그러면 외국은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가?

얼마전만 해도 체인점인 치킨이 미국 훼스트 후드 (Fast Food) 시장에서 판매고 1위를 차지하였으며 우리와 형편이 비슷한 일본에서도 체인점인 후라이드 치킨 회사는 재벌 회사로 성장하고 있다.

축산물 가공회사의 고전파는 반대로 FF업계는 성장 일로에 있다.

원유파동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전천후사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의 판매고를 통해본 발전속도를 소개한다.

우리나라에서 양계산물의 소비확대도 이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원유파동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미국의 훼스트후드

ATLANTA (미국의 양계 주산지)

인플레와 원유가의 계속적인 파동에도 불구하고 훼스트 후드들은 확장무드속에 1980년을 시작하고 있다.

훼스트후드 시장에서는 체인레스토랑과 판매 품목을 점차 늘려가면서 판매액을 올려 1979년도에는 125억 달러의 총판매고를 기록하였다. 이 수치는 1969년도의 25억 달러에 비하면 엄청난 증가이다.

맥도날드 회사는 (햄버거회사) 이러한 훼스트후드 시장에서 최고의 판매기록을 올렸는데 10년전에는 3억 3천 5백만 달러로서 3위의 판매기록을 보였었다. 맥도날드사가 이러한 급격한 신장을 거둔 주 요인으로는 소세지와 계란으로서 아침식사를 위한 메뉴개발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 다른 훼스트후드들도 일반적으로



맥도날드사를 본받고 있으며 메뉴로 일반적으로 아침식사용의 품목에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80년대에는 주로 훼스트후드에서는 아침식사용 메뉴가 중요한 품목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훼스트후드시장의 판매고순위를 보면 맥도날드사가 1위이며 10년전만해도 1등을 차지했다. 캔터키후라이드 치킨사가 2위 다음이 69년에는 9위를 차지했던 버거킹사가 3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로스트비프를 전문으로 하는 훼스트후드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Arby 사가 그 대표적 회사이다.

Arby 사는 로얄 크라운사의 방계 회사로서 미국내에 900개의 직영체인음식점을 가지고 있는데 9위 회사로서 이들의 계획에 의하면 1980년에는 총 5억 \$의 판매고를 올릴 예정이라고 한다.

전에 버거킹의 중역이었다가 지금은 Arby 사에 있는 E. Christian Schoenleb 씨에 의하면 Arby 사는 향후 5년안에 지금의 2배로 신장할 계획이며 이 신장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캔터키후라이드 치킨사와 Poppin Fresh Pie 사의 경영진을 10명을 Arby 사로 스카웃 하였다.

그 외에 Hardee 사도 로스트비프로서 채미를 본 회사이며 이 체인에는 비스킷과 소세지로서 아침식사메뉴에 대비하고 있다.

또한 Granny's Fried Chicken 도 확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아틀란타에 있는 그라니체인은 미세스 원터 치킨이라고 상호를 변



FF식품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어 우리 나라에도 캔터키 후라이드 치킨등 FF식품을 통한 소비활로가 열려야 할 것이다.

경하였는데 이는 이 지방에 그라니 음식점이 있기 때문이었다.

Pop Eye's Chicken도 뉴 올리언즈에서 동부시장 쪽으로 확장해가고 있다.

이러한 석유파동과,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맥도날드사를 비롯한 많은 훼스트 후드들이 신장세를 보이는 것은 그들의 많은 노력의 결과일 것이다. (Feed Stuff)